



박소현의 섹.시.토.크

“오늘 밤 어때?”

남편이 전화기 너머에서 끈적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아내는 마음속으로 ‘또 시작이군.’하고 생각했다.

“애들 일찍 재워.” “일찍 들어오기나 해.” 아내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남편의 목소리에 조바심이 실린다.

“퇴근하고 잠깐 부서회식이 있긴 한데 많이 늦진 않을 거야. 애들 재우고, 샤워하고 기다려.” 남편의 목소리는 애절해지자 아내의 얼굴에 슬쩍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갑자기 간드러진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알았어. 씻고, 약한 속옷 입고 있을테니까 땅한 잔만하고 들어와.”

“그래, 그래. 오늘밤을 들이서 불태우자고.” 남편이 들어온 시간은 밤 10시를 조금 넘어서었다. 평소에도 8시 전후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회식치고는 정말 빨간 파란 셈이다. 조금 지쳐 보이는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 위에 텔썩 주저앉았다.

“왜 약한 속옷 안 입고 있어?” “웃어야 금방 같아입으면 되지.”

“샤워는 했어?” “샤워도 금방하면 되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내는 여전히 부엌일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럼 내가 먼저 씻고 침대에 가 있을게.”

“그래, 기다리고 있어.”

“당신 오늘은 진짜 기대해도 좋아.”

“당신도 기대해.”

아내가 방으로 들어온 것은 11시를 넘어서였다. 남편은 조금 즐겁게 TV를 보고 있었다.

“오늘은 후배위로 한번 할까?”